

라이트모티프의 관점에서 고찰한 영화음악분석 연구- 히치콕의 <현기증>을 중심으로

박 은 경

1. 서론

영화에서 배우의 연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음악이다. 배우가 아무리 연기를 잘하여도 음악이 그 영화의 스토리와 등장인물의 심리를 잘 묘사하여 주지 못하면 좋은 영화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음악은 영화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며, 스토리 라인을 따라 어떻게 발전을 하는가.

본 논문은 알프레도 히치콕(Alfredo Hitchcock, 1899~1980)의 영화 <현기증(Vertigo)>(1958)의 음악을 라이트모티프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라이트모티프란 오페라, 악극, 표제 음악 등에서 어떤 인물, 감정, 사물등과 결부되어 사용되는 동기로, 그 후 같은 대상이 등장하거나 언급 될 때마다 그 라이트모티프가 다시 나타나며, 그 개념이 극중에서 어떻게 변화해 가느냐에 따라 그 동기의 리듬이나 화성이 변형·발전됨으로써 작품의 내용을 암시, 유도하면서 악곡을 통일시킨다. 여러 라이트모티프의 반복은 교향곡에서 주제의 반복처럼 음악적 통일성을 이룩해주는 효과적인 수법이기도 하다.¹⁾

고전 영화음악의 최고 영화감독은 알프레도 히치콕으로, 그는 스릴러,

1) Donald J. Grout, *A History of Western Music*, New York: W.W.Norton & Company., Inc., 1980, 631-632쪽.

서스펜스 영화의 거장으로 손꼽힌다. 히치콕 감독은 영국에서 태어나 유성 영화가 도입될 무렵 <공갈(Blackmail)>(1929)로 영화감독으로의 재능을 인정받기 시작했고, <암살자의 집(1934)> <39계단(1935)>, <사보타주(1936)> 등으로 심리적 불안감을 교묘하게 유도하는 독자적인 연출 방법을 확립하여, 이른바 ‘히치콕 터치’를 창출하였다. 1939년 미국으로 건너가 <레베카(1940)>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으며, <의혹의 그림자(1943)>, <백색의 공포(1945)> 등으로 유명해졌다. 그 뒤 <다이얼 M을 돌려라(1954)>, <이창(裏窓, 1954)>,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1959)>, <사이코(1960)>, <새(1962)> 등의 걸작을 발표하면서 감독으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다. 그는 혁신적인 카메라 구도, 정교한 영화편집, 효과적인 사운드트랙을 이용하여 서스펜스를 조성하고 이끄는 특유의 기술을 보임과 동시에 인간심리를 파악한 섬세함과 사실성으로 관객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히치콕이 영화감독으로서의 전성기를 보낼 때에 히치콕 영화음악의 많은 부분을 담당한 작곡가가 버나드 허먼(Bernard Herrmann, 1911~1975)이다. <현기증>의 음악도 허먼이 작곡하였다. 허먼은 어려서부터 오페라, 교향곡, 악기 레슨 등의 음악공부를 하였고, 뉴욕주립대학(NYU)과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작곡과 지휘를 배웠다. 1933년 CBS 음악감독으로 일하였고, 1941년 오손 웰스(Olson Welles, 1915-85) 감독에 의하여 할리우드로 초청되어 영화음악으로서 그의 첫 작품인 <시민 케인(1941)>을 작곡하였으며, 이후 50편이 넘는 영화음악을 작곡하였다. 1942년부터는 20세기 폭스사의 스튜디오 음악 감독이 허먼을 고용하여 <제인 에어(1943)>, <하노버 광장(1945)>, <왕과 나(1946)>, <유령과 뛰어 부인(1947)>, <지구 최후의 날(1951)>을 작곡하였다. 할리우드의 황금기인 1950년대에 허먼은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과 같이 <해리의 곤경(1955)>, <현기증(1958)>,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1959)>, <사이코(1960)>, <새(1963)> 같은 명작들을 만들었다. 허먼은 서스펜스의 대가인 히치콕 감독의 영화음악 작곡가답게 서스펜스를 다루는 기법으로 7화음, 불협화음, 복조(複調, bitonality), 다조(多調, Polytonality), 반음계적 기법, 반복기법인

오스티나토 음형 등을 많이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히치콕 감독의 <현기증>을 택하여 주제 선율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 주제 선율이 라이트모티프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현기증>의 다른 음악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어떠한 요소들이 발전,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고, 그 주제의 요소들이 각 등장인물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등장인물들의 심리상태를 음악적으로 어떻게 표현하였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1. <현기증> 시놉시스

경찰관인 스카티 퍼거슨(제임스 스투어트)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심각한 현기증을 일으키는 고소공포증 때문에 경찰을 그만 두고 사립탐정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어느 날 그는 대학 친구였던 개빈 엘스터(톰 헬모어)로부터 망령에 사로잡힌 자신의 부인 매들린(킴 노박)을 미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스카티가 매들린의 뒤를 미행해 본 결과 매들린은 캐로타라는 죽은 인물을 흉내 내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얼마 후 스카티는 금문교 아래에서 강물에 뛰어든 매들린을 구한 후로 그녀에게 사랑을 느끼고 매들린 역시 그에게 사랑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매들린이 이끄는 대로 교외의 한 수녀원에 간 스카티는 종탑에 올라가는 매들린을 따라 올라가다가 다시 고소공포증을 느끼게 되고, 그 사이 매들린은 그만 추락사하고 만다. 고소공포증 때문에 이 여인의 자살을 막지 못한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못해 정신병원 신세까지 지게 된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매들린이 들렀던 장소를 찾아 해마다 우연히 매들린과 비슷하게 생긴 주디(킴 노박, 1인2역)를 만난다. 스카티는 이제 주디에게 빠져든다. 그러나 주디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매들린의 모습으로 바꿔 놓으려는 스카티는 주디에게 매들린과 같은 옷을 입히고, 같은 머리 색깔로 염색하게 한

다. 그러나 주디와 함께 외출하려던 어느 날 주디가 부탁하여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게 되면서 그 목걸이가 캐로타의 초상화에서 캐로타가 목에 걸고 있었던 목걸이와 똑같은 것을 알게 되고 주디를 매들린으로 의심하게 된다. 그리하여 주디를 데리고 매들린이 자살하였던 수녀원으로 데려가 종탑으로 억지로 끌고 올라가게 된다. 거기서 주디에게서 친구 엘스타가 자기 부인을 죽이려는 계략에 스카티가 말려들었음을 고백 받는다. 자신에게 고소공포증이 있는 것을 알고 일부러 주디를 자기 부인인 매들린처럼 만들어서 종탑위로 올라가게 만들고 스카티는 고소공포증 때문에 종탑 꼭대기에 따라 올라가지 못하고, 그 꼭대기에서 매들린이 올라오기를 기다렸던 엘스타가 자신의 진짜 아내를 매들린과 똑같은 옷을 입혀 밑으로 떨어트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종탑꼭대기에 올라갈 때 스카티가 고소공포증에서 벗어나 현기증을 일으키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다.

2. <현기증> 영화음악 분석

<현기증>에는 45개의 음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스토리 전개에 중요한 다음의 16개의 음악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1) “프렐류드(Prelude)”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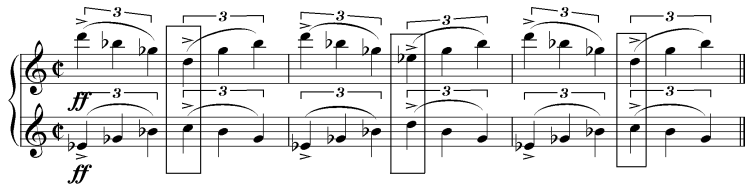
“프렐류드”는 <현기증>의 서곡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영화의 뒷부분에서 사용되는 두 개의 아이디어, 즉 남자 주인공 스카티가 현기증을 느낄 때마다 나오는 ‘현기증 화음(Vertigo 화음)³⁾과, 스카티와 매들린이 사랑을 느낄 때마다 나오는 ‘러브 모티프(Love motif)’와 관계가 있으며, 또한 엘리자베스 아덴 미용실에서 주디가 매들린으로 변하는 짧은 장면에서 나

2) 본고에서 분석하는 16개 음악의 제목들은 버나드 허먼의 악보에 큐(cue)로 제시되는 제목들이다. David Cooper, *Bernard Herrmann's Vertigo: A Film Score Handbook*, London: Greenwood Press, 2001, 76-79쪽.

3) Dmaj 3화음과 E^bmin^{#7} 화음이 합해진 복조 화음으로 스카티가 현기증을 느낄 때마다 나오므로 여기서는 이것을 ‘현기증 화음’이라고 명명함.

오는 ‘오스티나토 음형’과도 연관이 있다. 이 오스티나토 음형은 대칭의 축⁴⁾을 가지고 있으며, 영화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오스티나토 음형은 프렐류드에서 계속 반복되는데, 처음에는 4분음표의 셋잇단음표로 나오다가 나중에 8분음표의 셋잇단음표로 바뀌는데 이것은 강박적인 노이로제를 암시한다.

(악보 1) “프렐류드”에 나오는 오스티나토 음형의 대칭 축



“프렐류드”는 화면에 제임스 스투어트의 이름이 크레딧⁵⁾에 나올 때에 금관악기와 목관악기가 E^bmin^{#7} 음의 지속음 위에서 *ff*를 연주한다 (12마디 세 번째 박자). 이 *ff*는 세 마디 반 동안 매 2분음표마다 트라이앵글로 규칙적으로 연주하고, 하프와 첼레스타가 조용하고 불안정한 아르페지오를 연주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충격적인 음악이다. 이 음악에서는 한 여인의 옆모습이 부분적으로 보인다. 이 아르페지오는 계속 반복되는데 이번에는 “Kim Novak”의 이름이 나올 때에 A^bmaj의 제1전위가 나온다. A^bmaj 화음은 ‘러브 모티프’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 영화에서 중요한 음악이 되는 “사랑의 장면(Scene d'amour)”과 “피날레”에서 이 화음이 나온다. 그리고 영화의 제목인 ‘Vertigo’라는 글자가 나올 때에 낮은 C 음위의 Dmaj 3화음과 E^bmin^{#7} 화음이 합해진 화음이 연주된다. Dmaj와

4) David Cooper, 위의 책, 23쪽.

5) 영화 한편이 제작되면서 참여한 모든 인물들의 일괄적인 명단. 주 조연급 배우, 연출자, 촬영 감독, 의상, 소품, 시나리오 작가, 제작자를 비롯해 일체의 스태프진, 영화 제작에 도움을 준 외부 인사 그리고 상품이나 촬영 장소 제공자 등을 모두 명기하여 내어보내는 화면. (논자 주(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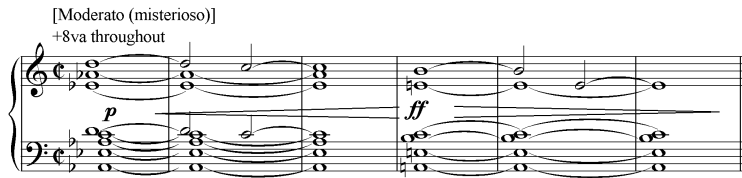
$E^b_{\min} \#_7$ 화음을 합한 화음은 복조(複調, bitonality) 화음으로써, 나중에 스카티가 현기증을 느낄 때마다 나오는 복조 화음(악보 2)의 기초가 된다.

(악보 2) '현기증(Vertigo) 화음'



화면에 나선형 모양이 나올 때에 플루트와 바이올린이 E^b_{\min} 의 상행 음계를 연주하고, 그 다음에 '러브 모티프'가 나온다. 프렐류드의 첫 번째 부분은 긴장감을 표현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알려진 증3화음($B^b-D-F^\#$)으로 끝난다. 이제 두 배로 빨라진 박자는 견고하게 확립되고, '러브 모티프'(악보 3)는 3마디가 아니라 2마디 단위로 반복된다.

(악보 3) "프렐류드"에 나오는 '러브 모티프'



2) "지붕 위 (Roof-top)"

<현기증>에서 스카티의 고소공포증 발작을 표현하는 음악의 뚜렷한 특징은 '복조화음'과 발버둥치는 모습을 표현하는 '반음계적 진행 음형', 그리고 반음계적으로 반복되는 금관악기의 '크레센도 음형'이다. "Roof-top"은 제목과 크레딧 이후에 나오는 부분인데, 화면에 나무 봉이 나오고 지붕 위 사다리의 꼭대기에 스카티가 매달려 있는 것으로 시작된다. 바순, 첼로가 베이스 화음을 지속음으로 연주하는 위에서 현악기가 빠르게 움직이는 16분음표의 반음계적 음형을 오르락내리락 연주한다.

(악보 4) "Roof-top"에 나오는 16분음 오스티나토 음형



지붕 위로 올라가는 도망자의 프레임을 카메라가 뒤로 끌어당길 때 빠르게 움직이는 16분음표짜리 반음계적 음형은 트럼본과 튜바로 연주되는 크레센도 음형으로 가세된다. 금관악기의 크레센도 상행은 도망자가 처음에 나오고 제복을 입은 경관, 그리고 그 다음에 사복을 입은 스카티가 따라올 때 F[#]에서 E^b으로 바뀐다. 도망자가 타일로 덮인 지붕 위로 뛰어 오르고, 다시 제복을 입은 경관이 먼저, 그리고 사복을 입은 스카티가 그 다음으로 추격을 할 때 금관악기의 크레센도는 이번에는 반대로 D음에서 B^b음으로 반음씩 하강음형을 연주한다. 카메라가 스카티가 지붕에서 미끄러져서 흙통을 잡은 장면을 클로즈업할 때에 16분음표 반음계적 음형은 현악기의 트레몰로로 바뀐다. 팀파니의 크레센도는 귀에 거슬리는 복조 화음으로 이어진다.

금관악기와 목관악기로 Dmaj 3화음과 E^bmin 3화음의 ‘Vertigo 화음’이 충돌이 되게 연주하면서 포워드 줌(forward zoom)⁶⁾과 이와 반대되는 트래킹 샷(tracking shot)⁷⁾을 동시에 찍는 것은 스카티가 자신의 아래에 있는 거리를 내려다 볼 때 현기증이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복조화음은 제복을 입은 경관이 스카티를 돕기 위하여 지붕에서 내려가는 장면에서 나온다. 이번에는 A^bmin 3화음과 Gmin 3화음이 충돌하는데, 현악기가 트레몰로로 금관악기와 함께 연주한다. 이 두 개의 화음은 계속 반복되고, 스카티의 고통스러워하는 얼굴과 경찰관이 “손을 주세요” 라고 외

6) 줌 렌즈를 사용하여 카메라를 움직이지 않고 피사체로 다가가는 것처럼 보이게 촬영하는 것. 유재형 편저, 『영화영상기술용어집』, 서울: 집문당, 1999, 897쪽.
7) 영화 촬영 시 카메라를 이동시켜 가면서 촬영하는 기법으로, 여기서는 카메라가 피사체로부터 멀어지게 이동하는 것. 위의 책, 674쪽.

치는 장면에서 반복된다. Dmaj/E^bmin의 세 번째 출현은 경찰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스카티가 내려다 볼 때에 나온다.

땅에 떨어진 경찰관을 보려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다음 장면에서 팀파니의 굴리는 연주가 나오고 금관악기가 C음에서 D^b음으로 반음 올라갈 때에 강한 크레센도가 나온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낮은 화음은 스카티의 공포감을 표현하는 마지막 클로즈 샷(Close Shot)⁸⁾이 사라질 때에 들린다.

시각적으로 생기는 긴장감이 음악적으로는 조성의 충돌, 리듬의 충돌, 16분음표짜리 반음계적 음형의 계속되는 반복, 16분음표짜리 반음계적 음형과 금관악기의 크레센도 음형에서 나타나는 연장된 반음계주의 등으로 반영되었다.

3) “매들린 (Madeleine)”

이 곡은 <현기증>에서 나오는 음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곡 전체를 통하여 “Madeleine”의 각 부분들이 하나의 모티프가 되어 이후의 여러 곡들에서 발전하게 된다. “Madeleine”은 스카티가 엘스터의 아내라고 생각하는 매들린을 처음 보는 순간 나오는 음악이다. “Madeleine” 선율은 세 개의 프레이즈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프레이즈는 처음-네 번째 마디 중간까지, 두 번째 프레이즈는 네 번째 마디 중간-여덟 번째 마디 중간까지, 세 번째 프레이즈는 여덟 번째 마디 중간부터 끝인 13마디까지 이루어져 있다(악보 5)⁹⁾. 처음은 못갖춘마디로 시작하였지만, 끝은 반 마디가 연장되어 갖춘마디로 끝이 난다. 첫 번째 프레이즈는 4개의 음으로 이루어진 단위가 대칭적으로 다시 4개로 이루어져 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음형은 완만한 크레센도 속에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음형은 하강 곡선을 그린다. 이 서정적인 멜로디의 연주 악상 지시는 ‘부

8) 接寫, 필름 촬영에서 사용하는 인물촬영의 화면규격으로, 인물의 어깨 위를 잡는 화면규격을 말한다, 위의 책, 161쪽.

9) Graham Bruce, *Bernard Herrmann: Film Music and Narrative*, Michigan: UMI Research Press, 1985, 144쪽.

드럽게(dolce)와 “느리고 사랑스럽게(Lento Amorooso)”로 되어 있다. 이것은 매들린의 관능적인 모습을 잘 전달하고 있다.

(악보 5) "Madeleine"

Lento Amorososo (♩=70)

The musical score is divided into three systems. The first system includes Violins (Vlns), Violins A (VA), and Violins C (VC). The Violin A and C parts are marked 'MUTE' and 'pp'. The second system includes Violin I (Vln.), Violin II (Vla.), and Cello (Vc.). The third system includes Violin I (Vln.), Violin II (Vla.), and Harp (Hp.). The Harp part is marked 'HARP' and 'f'. The score includes various dynamics such as 'dolce', 'pp', 'f', and 'ff', and performance instructions like 'MUTES', 'MOLTO RALL.', and 'V.C.'. Measure numbers 1 through 13 are indicated throughout the score.

이 곡은 <현기증>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각 단편들로 나뉘어져 계속 반복, 변형, 발전되는데, 영화의 뒷부분에서 반복, 변형, 발전을 하게 되는 네 개의 재료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재료는 네 개의 음으로 이루어진 상행-하행, 상행-하행의 음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번째 부분은 앞의 것의 변형된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번째 재료는 4째마디 맨 끝의 B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여섯 개의 하행 음형, 세 번째 재료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는 점음표 리듬(9~10마디 중간), 네 번째 재료는 12~13마디에 걸쳐서 나오는 첼로의 선율이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선율은 첫 번째 재료인 네 개의 음으로 이루어진 상행-하행 음형이다.

4) “매들린의 차(Madeleine’s Car)”

“Madeleine” 선율이 끝나자마자 바로 나오는 음악으로, 어니 식당(Ernie’s Bar)에서 매들린의 아파트 앞에 스카티가 그의 차 안에 앉아 있는 장면 전환과 함께 시작하여 스카티가 매들린의 차를 아파트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 거리를 지나 꽃가게 뒤의 골목길까지 미행할 때 나오는 음악이다.

이 음악은 “Madeleine” 선율의 맨 마지막 두 마디의 첼로 선율을 변형한 것이다(악보 6). 클라리넷으로 시작되는 오스티나토 음형(♭ ♭ ♭ ♭ ♭ ♭)은 “Madeleine’s Car” 전체를 통해 계속적으로 나온다(악보 7). 이 반복되는 오스티나토 음형과 “Madeleine” 선율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첼로 선율의 변형은 스카티가 매들린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을 보여준다. 첼로 선율이 5개짜리 음을 연주하는데, 이 5개짜리 음형은 6개의 음형으로 확장되어서 매들린이 걸어 나와 그녀의 차에 탈 때와 아파트 건물을 오랫동안 안 비출 때에 연주된다.

(악보 6) “Madeleine’s Car”에 나오는 5개짜리 음형

Madeleine 선율에 나오는 맨 마지막 2마디



Madeleine's Car 선율에 나오는 5음의 음형



(악보 7) "Madeleine's Car"의 오스티나토 음형



5) “꽃가게 (The Flower Shop)”

이 음악은 매들린이 샌프란시스코 거리를 배회하고 꽃가게에 들렀을 때 나오는 음악이다. “Madeleine” 선율이 여기서는 약간 변형되었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Madeleine” 선율의 1-4마디(네 음짜리 음형 네 개)가 제1바이올린에서 시작되는데, 원래 나왔던 것보다 두 옥타브 위로 연주된다(악보 8).

(악보 8) “The Flower Shop” 1~4마디



이 음악은 꽃가게까지 매들린을 뒤쫓던 스카티가 어둠 속에서 가게의 뒷문을 열 때 시작된다. 이 장면은 화면이 어둡다가 빛이 화면 가득하게 비춰지면서 매들린이 화면의 한 가운데에 잡힌다. 네 개의 네 음 음형의 마지막 부분에서 매들린이 카메라를 향해 다가온다.

하강 음형(“Madeleine” 선율의 5~6마디)이 시작됨과 동시에 스카티가 조금 열린 문 뒤로 엿보고, 매들린은 가게 옆에 달린 거울로 보이는 장면을 보여 주는데 여기서 갑자기 음악이 한 옥타브 낮아진다. 하강 음형은 꽃가게 주인이 매들린에게 작은 꽃다발을 가져다 줄 때 매들린의 시점으로 되돌아오면서 계속된다. 음악은 스카티가 문을 닫으면서 하강 음형의 마지막 음(D)에서 종지가 확실하지 않게 끝나고 다음 음악인 “골목길(The Alleyway)”이 바로 시작된다.

6) “골목길(The Alleyway)”

스카티가 꽃가게 문을 닫을 때, 스카티가 출입구를 나와 골목길로 나올 때, 그리고 매들린이 출입구를 나와 골목길에 나타날 때에 하프가 B^b₇의 아르페지오를 세 번 연주한다. 화성적으로는 B^b₇화음과 D에서의 증3화음과 E^b에서의 증3화음이 주류를 이루는데, 그 이유는 골목길의 어두침침한 분위기를 묘사하기 위하여 불안하고 모호한 느낌을 주는 증3화음을 사용한 것이다.

“The Flower Shop”에서 꽃가게 점원이 매들린에게 조그만 꽃다발을 가져다 줄 때 매들린의 시점의 마지막 부분, 즉 “Madeleine” 선율의 5, 6마디에서 나오는 하강 음형의 마지막 4음(G-F[#]-E-D)이 이 곡에서 아주 많이 나온다(악보 9). G-F[#]과 E-D의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진 이 4개의 음은 스카티가 골목길에 있는 어두운 창고로 들어가서 꽃가게의 뒷문을 열고

다시 그의 차로 돌아갈 때 아주 많이 반복해서 나오고, 하프의 화음으로 강조된다. 이렇게 “Madeleine” 선율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스카티가 문을 닫고 있는 동안에도 매들린이 꽃들에 둘러 싸여 있으며, 스카티의 마음속에도 살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악보 9)



스카티가 그의 차 안에서 매들린이 나오는 것을 쳐다보고 있을 때 아래 클라리넷 음형(E-F-E-D)이 나오는데, 이것은 “Madeleine’s Car”의 5~6마디에서 비올라가 연주한 음형(D-E-F-E-D)의 변주이다(악보 10).

(악보 10) “Madeleine’s Car”의 5~6마디



Alleyway에 나오는 클라리넷 음형



매들린이 차에 타고 스카티가 매들린을 뒤쫓을 준비를 할 때 “Madeleine” 주제 5, 6마디에서 나왔던 위의 두 음 음형이 다시 계속 반복된다.

7) “캐로타의 초상화(Carlotta’s Portrait)”

매들린이 묘지에서 나와 전시관에 들어가 어떤 여자의 초상화 앞에 한참 앉아 있다. 이 초상화는 캐로타 벨테스의 초상화이며, 매들린이 꽃가게에서 만들어간 조그만 꽃다발이 초상화 속의 캐로타가 들고 있는 꽃다발과 일치하며, 매들린이 하고 있는 머리모양도 초상화 속의 캐로타의 머리 모양과 일치한다. 캐로타 벨테스는 스페인 수녀원인 산 주안 배티스

타(San Juan Batista)에서 자랐으며, 춤과 노래로 돈을 벌다가 돈 많고 권력 있는 어떤 남자를 만나 그의 정부가 된다. 그리고 그의 아이를 낳지만 남자에게 아이를 뺏기게 되고, 아이를 뺏긴 후 그 아이를 찾아 거리를 헤매다가 미쳐서 자살하기에 이른다.

허먼은 캐로타의 스페인적 배경과 댄서로서의 직업을 표현하기 위하여 D음으로 스페인의 가장 잘 알려진 춤곡인 하바네라 리듬(e. xee)을 거의 곡 전체에 걸쳐 사용하였으며, 하바네라 춤곡에서 사용되는 기타의 음색을 표현하기 위하여 오케스트라의 하프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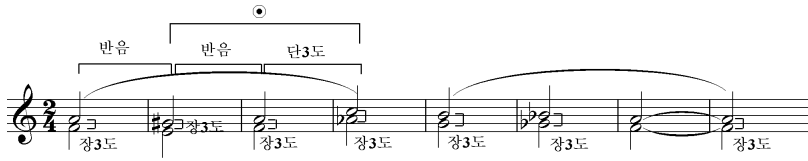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짜로 만든 캐로타와 매들린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허먼은 “Madeleine” 선율의 첫 부분에 나오는 4개짜리 음형 두 개(1~2마디)에서 이끌어낸 지속적인 멜로디와 하바네라 리듬을 결합하였다. 이 지속적인 멜로디와 하바네라 리듬은 캐로타와 관련이 있는 음악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Carlotta’s Portrait”의 반음 진행은 “Madeleine” 선율의 반음 진행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그 다음에 나오는 단3도 상행 진행은 “Madeleine” 선율의 장3도 상행 진행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멜로디 아래로 장3도 음정으로 병행 진행하는 것도 “Madeleine”의 바이올린 선율 아래로 장3도 음정이 병진행 하는 것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악보 11).

(악보 11) “Carlotta’s Portrait” 선율에 사용된 “Madeleine” 선율 1~2마디



“Madeleine” 선율에서 도출된 “Carlotta’s Portrait” 선율



바이올린이 높은 음역으로 대선율 D-E-F-E-D-E^b-D를 연주하는데 (21~28마디), 이것은 “Madeleine’s Car”에서 나왔던 선율과 비슷하다. 이것 역시 매들린과 캐로타와의 관계를 암시하는 것이다(악보 12).

(악보 12) “Carlotta's Portrait” 선율에 나오는 바이올린 대선율



Madelain’s Car 선율에 나오는 5음의 음형



8) “샌프란시스코 만(The Bay)”

이 음악은 매들린이 미술관에서 나와 차에 타서 출발하는 것을 보고, 스카티가 미행하려고 차에 시동을 거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금문교를 향하는 매들린의 차를 스카티가 뒤쫓는 장면을 오랫동안 비추는 디졸브와 함께 “The Bay”의 앞부분 내내 계속되는 하프의 아르페지오 위에서 “Madeleine” 주제의 도입부에서 유래한 서정적인 음형이 시작된다(악보 13).

(악보 13) "Madeleine" 1~2마디



The Bay의 Oprening Melody



매들린의 차가 화면에서 사라졌을 때 카메라는 오른쪽에서 비추고, 스카티 차가 보일 때 이번에는 바이올린이 “The Bay” 도입부의 서정적인 멜로디를 연주한다. 스카티가 차를 급히 세웠을 때 음악은 잠시 끊어진다. 스카티가 금문교 바로 아래에 서있는 매들린을 감시하려고 차에서 내릴 때에 하프의 아르페지오 연주는 멈추고, 음악의 추진력과 음악적 짜임새는 빈약해진다. 이 가라앉은 부분은 “Madeleine’s Car”를 지배하는 음형에 근거하고 있다.

스카티가 물속에 뛰어 든 매들린을 물에서 구출하고 나서 매들린을 처음으로 안을 때 스카티와 매들린의 첫 만남을 강조하기 위하여 “Madeleine” 선율의 첫 부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대 발전되어 사용된다. 스카티가 계단을 올라가는데 맨 위의 계단에 섰을 때 그리고 차 옆에 섰을 때 “Madeleine” 선율의 네 음짜리 음형의 변형이 연주된다. 장면이 차 안으로 바뀌면서 또 다른 변형 음형이 연주되고, 스카티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차 안의 의자에 매들린을 앉히고, 매들린의 이름을 부를 때에 “Madeleine” 주제에서 파생된 하강 음형의 변형이 4/4박자로 연주된다. 마지막 두 개의 음이 바이올린으로 한 옥타브 높게 반복하고, 여인의 신비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솔로 바이올린이 한 옥타브 더 높게 반복한다.

9) “외출(The Outing)”

“Madeleine” 주제가 원래 형태와 가깝게 나오는 마지막 부분은 스카티가 매들린을 두 번째 만나서 그녀에게 자기와 함께 시간을 보내달라고 설득할 때이다. 이 장면은 음악이 매들린이 스카티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매들린이 스카티에게 작별인사를 할 때에 시작된다. 매들린이 자기 차에 탈 때 음악은 “Madeleine” 주제의 원래 곡에서 나왔던 네 음짜리 음형들로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좀 더 낮은 조로 연주된다. 음악은 하강음형으로 계속되고, 네 음짜리 음형이 좀 더 나온다. 두 사람의 상반신을 교대로 보여줄 때 스카티가 매들린의 차 옆으로 가서 그가 그녀와 함께 “배회하도록” 그녀를 설득시키려고 노력한다. 매들린이 허락하자 스카티가 그녀의 차 앞문으로 갈 때 음악은 “Madeleine” 주제의 원래 조로 돌아온다.

두 사람이 같이 정처 없이 갈 때에 매들린 차가 하이 샷¹⁰⁾으로 장면전환이 되면서 음악은 바이올린의 높은 음역으로 들어간다. 지금까지 약음기를 끼고 연주되었던 네 음짜리 음형이 이제 처음으로 포르테로 연주되고, 그 효과는 승리자의 느낌을 준다. 장면이 차 안으로 전환될 때 또 다른 상행하는 첫 네 음짜리 음형이 연주되고, 갑자기 다음과 같은 하강하는 네 음짜리 다른 음형으로 바뀐다(악보 14, 프렐류드에 나오는 러브모티프). 이 음형 다음에 바로 “해변(The Beach)”의 점음표 음형이 나온다.

(악보 14) 하강음형



10) High Position Shot, 부감촬영 장면, 카메라를 크레인이라든가 높은 부감대 등에 설치하고 높은 위치에서 아래를 향하여 촬영한 장면으로 일반적으로 하이앵글 샷(High Angle Shot)이라고 한다. 유재형 편저, 위의 책, 375쪽.

6마디로 만들어진 프렐류드의 ‘러브 모티프’ 이후로 이 네 음짜리 하강 음형은 처음 들리는 것이다. 바이올린이 중간 음역으로 연주를 하고 다른 현악기로 다시 받아서 연주하는 이 음형은 이 두 사람의 관계의 중요한 모티프가 될 것을 암시하면서 차 안의 매들린과 스카티의 가까운 두 개의 샷과 함께 울려 퍼진다. 이 모티프는 즉시 클라리넷 솔로로 반복된다. 이 클라리넷 연주는 다음 장면의 어두운 분위기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화면은 세쿼이아¹¹⁾ 숲으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이 장면의 끝을 맺는 클라리넷 연주는 스카티가 그의 옆에 있는 매들린을 쳐다 볼 때 스카티로, 그리고 매들린으로 가는 장면을 반주한다. 이것은 이 모티프의 역할을 다시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The Outing”의 마지막 두 마디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Madeleine” 주제의 4마디 중간~6마디 중간까지의 음형을 변형한 것이다 (악보 15).

(악보 15) “Outing”과 “Madeleine” 주제

“Madeleine” 주제 4~6마디



“The Outing” 마지막 두 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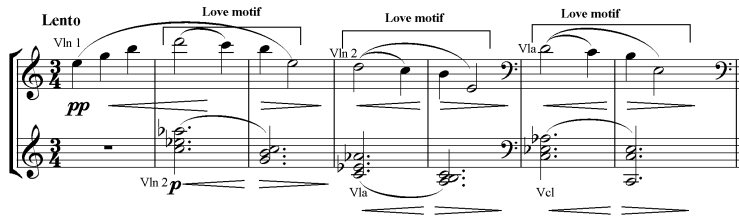
10) “작별(Farewell)”

허먼은 “The Bay”의 앞부분에서 나왔던 음악을 훨씬 빠른 박자로 다시 사용함으로 이 장면을 시작한다(악보 16). 스카티와 매들린이 산 주안 배티스타(San Juan Battista) 수녀원에 도착하였을 때, 바이올린이 높은 음역

11)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대한 침엽수.

으로 하바네라 리듬을 연주하고, 이것은 다시 플룻의 가장 낮은 음역으로 응답송처럼 연주를 한다. 카메라가 스카티와 매들린이 들어 온 마구간 출입문을 비추는 동안 플룻과 오보가 멜로디를 이어받고, 호른은 하바네라 리듬을 단선율로 연주한다. 매들린이 어린 시절 수도원에서 있었던 것을 회상하고, 스카티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기억은 어린 시절의 기억이 아니라 단순히 최근에 이곳을 방문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라고 얘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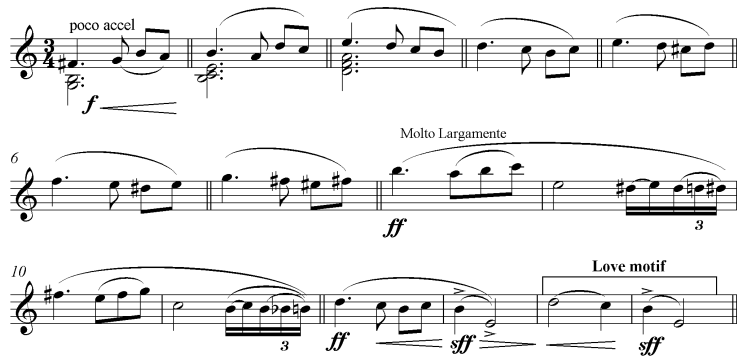
(악보 16) “The Bay”에 나왔던 음악



스카티가 매들린에게 부드럽게 키스할 때 잉글리쉬 호른이 하행하는 러브 모티프를 연주한다. 스카티가 매들린을 꼭 껴안고 매들린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 음악은 “Madeleine” 주제의 8, 9, 10마디의 점음표를 변형한 형태로 상행했다가 하행한다. 매들린이 “너무 늦었어요” 라고 중얼거리고 현악기와 잉글리시 호른이 연주하는 위에 호른이 가세할 때에 박자는 3/4박자로 바뀌고, “Madeleine” 주제의 첫 부분에 나오는 네 음짜리 음형이 세 번 연주된다. 매들린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스카티에게서 빠져 나갈 때에 현악기가 더 높은 음역으로 상행하는 세 번째 음형을 연주한다. 네 음짜리 음형을 연주할 때 박자는 더 빨라지고, 스카티가 매들린을 쫓아 잔디 광장을 가로질러 갈 때 걱정적인 왈츠를 연주한다(악보 17). 이 걱정적인 왈츠는 “Madeleine” 주제의 5, 6마디에 나오는 하강 음형의 변형과 결합한다. 매들린이 스카티에게 교회에 혼

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할 때 현악기와 오보가 리브 모티프를 아주 크게 두 번 연주한다. 매들린이 종탑을 올라다 본 후 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갈 때 연주하는 호른의 짧은 솔로가 스카티가 매들린을 뒤쫓는 장면에서 현악기 트레몰로로 이어진다.

(악보 17) "Farewell"에 나오는 왈츠와 '리브 모티프'



11) “탑(The Tower)”

산 주안 배티스타 수녀원에서 스카티가 종탑의 계단을 올라가는 매들린을 따라 올라갈 때에 또다시 현기증을 느낀다. 자신의 진짜 아내를 죽여서 탑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자살한 것처럼 보이려는 엘스터의 계획대로 스카티는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못하였고 스카티는 자기가 수녀원으로 데리고 갔던 매들린이 자살하는 것을 보고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는다. “The Tower”는 오프닝에서 나왔던 두 개의 복조화음을 변화시킨 세 개의 스포르찬도 화음이 계속하여 변주가 된다.

스카티가 교회에 들어갈 때 큐의 처음에서 나왔던 세 개의 화음이 다시 나오는데, 스카티가 텅 빈 교회 안에서 매들린을 찾느라고 당황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다이내믹이 줄어든다. 스카티가 매들린이 탑의 계단위로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빠르고 힘차게 움직이는 반음계적 음형이

다시 나오는데 강한 금관악기의 크레센도의 상행 음형들이 계속 나온다. E^b_{min} 3화음과 D_{maj} 3화음의 연결로 만들어졌던 원래의 복조화음을 갑자기 사용하기 때문에 이 음형은 짧게 나온다. 여기에서도 스카티가 계단에서 아래를 내려다 볼 때에 “Roof-top”에서와 마찬가지로 계단을 포워드 줍과 트래킹 샷으로 동시에 찍음으로 스카티의 현기증을 보여준다. 이 장면은 하프의 글리산도 및 트럼펫과 호른으로 연주하는 복조화음으로 연주된다. 스카티는 목관악기와 현악기의 빠른 음형의 음악에 맞추어 계단을 올라가려고 애쓰는데, 스카티가 두 번째로 아래를 내려다보자 또 현기증이 나면서 다시 복조 화음이 들린다.

이제 금관악기로 2배로 빠른 박자로 16분음 빠른 음형이 다시 연주되고, 스카티가 창문으로 여자가 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새로운 복조 화음이 목관악기로 매우 크게 터져 나오듯이 연주된다.

12) “어떤 여자(The Girl)”

“The Girl”은 “프렐류드”의 ‘러브 모티프’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음악이다. 스카티가 매들린이 죽은 후 매들린과 관계가 있는 장소들을 방문하다가 길가에서 매들린을 닮은 여자를 발견하게 된다. 그 여자는 머리 색깔은 비록 매들린보다 훨씬 진하지만 얼굴 윤곽은 매들린과 매우 비슷하다. 스카티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돌려 그 여자를 따라간다. 스카티는 그 여자가 허름하고 싸구려로 보이는 엠파이어 호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으로 오버랩된다. 스카티는 길을 건너 호텔로 들어간다.

음악은 ‘러브 모티프’의 하강하는 프레이즈로 지배가 되는데, 약음기를 낀 현악기들이 나뉘어서 천천히 하강음형을 한 옥타브씩 아래로 4번 연주한다. 스카티가 호텔로 들어가는 샷과 호텔 복도로 이어지는 샷으로 오버랩되고 그 아가씨의 방문 앞에 갈 때까지 ‘러브 모티프’가 다섯 번 나온다. 이 장면의 처음에서 ‘러브 모티프’가 네 번 점점 낮은 음역으로 나오는 것과 대조하여 이 다섯 번의 ‘러브 모티프’는 같은 음역으로 반복된다. 그리고 스카티가 문 앞에 섰을 때 음악이 잠시 멈췄다가 마지막

두 개의 ‘러브 모티프’는 마지막 음(E)이 잘려서 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그 앞의 장면 즉, 매들린의 아파트 앞에서 발견한 금발의 여자가 매들린이 아니라 매들린의 차를 산 다른 여자임을 알았을 때 실망감을 느낀 것처럼 지금도 다른 여자일까 두려워하는 스카티의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러브 모티프’의 네 음을 다 연주하지 않는 것이다.¹²⁾ 주디와 스카티의 만남은 스카티가 자신을 매들린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주디가 일부러 교양이 없어 보이게 하는 대화로 이어진다. 그리고 스카티가 주디의 방을 떠날 때까지 음악이 사용되지 않는다.

13) “사랑의 장면(Scene d'amour)”

이 음악은 스카티가 주디의 호텔방에서 주디가 미용실에서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화면은 주디의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르는 장면에서 스카티가 주디의 방에서 서류를 읽고 있는 장면으로 오버랩되면서 바이올린이 ‘러브 모티프’를 매우 부드럽게 연주한다. 스카티가 조바심이 나서 창문과 거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주디가 왔다고 생각하고 복도로 나올 때까지 ‘러브 모티프’는 계속 반복된다.

주디가 복도의 끝에 나타나 아무 말 없이 스카티를 지나 곧바로 방안에 있는 화장대 거울 앞에 설 때까지 목관악기는 지속화음을 부드럽게 연주한다. 주디가 “왜요?”라고 화가 난 듯이 묻고 스카티는 주디에게 왜 금발 머리를 목 뒤로 틀어 올려 핀을 꽂는 헤어스타일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볼 때 제1바이올린은 다시 ‘러브 모티프’를 연주한다. 주디가 그 스타일은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항변을 할 때 제2바이올린이 ‘러브 모티프’를 이어 받고, 스카티가 주디에게 자기의 소원을 들어 달라고 간청할 때에 “Madeleine”의 점음표를 변형한 형태가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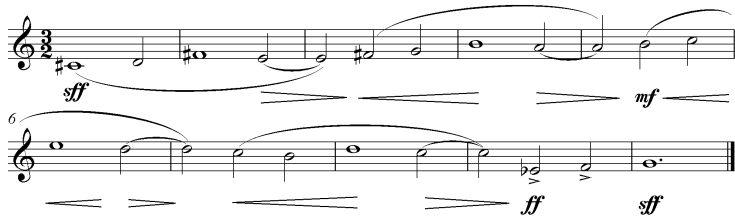
이제 다른 현악기들이 바이올린과 합세하여 약간의 크레센도가 되어 “해변(The Beach)”에서 스카티가 매들린을 껴안을 때에 나온 “Madeleine”의 첫 4개짜리 음형이 계속 상행하는 부분이 연주된다(악보 18). 주디가 욕실에

12) David Cooper, 앞의 책, 160-161쪽.

들어가 머리 모양을 바꾸는 동안 스카티는 초조하게 기다린다. 스카티가 돌아서서 창문 앞으로 갈 때에 현악기들이 “Madeline”의 첫 4음짜리 음형과 ‘러브 모티프’를 피아니시모로 연주한다.

(악보 18)

The Beach의 마지막 10마디(Madeleine주제의 첫 네 음짜리 음형을 발전시킨 것)



이 부분은 음악과 배우의 움직임과 카메라가 다 같이 긴장하고 기다리는 순간이다. 허먼은 상행하는 반음계와, 4분음표를 셋잇단음표로 나눔으로써 긴장감을 강화시키면서 클라이맥스를 만든다. 주디를 매들린으로 만드는 데에 오랫동안 기다려 온 이 장면에서 현악기는 가장 높은 음역에 이르고, 여기에 호른과 목관악기, 아르페지오를 연주하는 하프가 가세한다. 현악기가 높은 음으로 러브 모티프를 두 번 연주한다. 히치콕 감독은 이 장면을 찍을 때 빛을 처리하는 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히치콕은 주디가 사는 호텔을 일부러 엠포이어 호텔로 선택하였다. 이 호텔은 창문 앞에 녹색 네온사인인 있어서 “주디가 욕실에서 걸어 나올 때에 녹색 불빛은 주디가 귀신같은 느낌을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¹³⁾ 뿐만 아니라 카메라 앞의 흐릿한 유리는 주디가 앞으로 걸어 나올 때에 점차적으로 그 흐릿함의 강도를 높여서 스카티와 관객이 처음에는 주디를 유령으로 보았다가 주디가 가까이 걸어 나옴에 따라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는 효과를 노렸다.¹⁴⁾ 이러한 과정은 음악적으로도 조화를 이루었다. 유령이 나올 때에 ‘러브 모티프’가 두 번 연주된 다음에 “작별(Farewell)”에서 스카티가 매들린을 마지막으로 껴안기 직전에 나왔던 격렬한 왈츠 음형이 따라 나온다. 음악은 부드럽게 시작하여 점점 커지고 비올라가

13) François Truffault, *Hitchcock*. London: Panther, 1969, 30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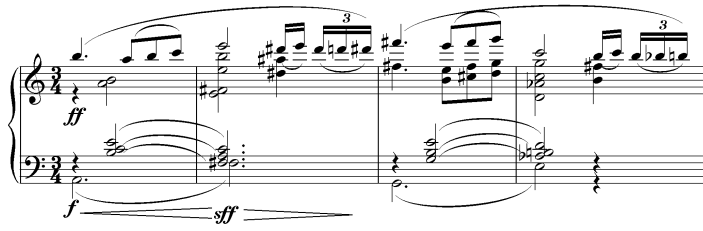
14) Spoto, *The Art of Alfredo Hitchcock: Fifty Years of His Motion Pictures*, Garden City, N.Y.: Doubleday, 1979, 330쪽.

높은 음역으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유령 같아 보이던 주디가 점점 가까이 보이면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음악은 거대한 클라이맥스에 이르게 되고 물결치는 듯한 하프의 아르페지오로 클라이맥스가 강조된다. 스카티가 가까이 가는 장면을 끊음과 동시에 비올라가 ‘러브 모티프’를 두 번 연주한다. 그 다음에 스카티가 주디에게 키스할 때 관객에게 장면을 주디의 침실에서 스페인 풍의 수도원의 마구간으로 이끌어주는 오버랩의 방법으로, 수도원에서 스카티가 매들린을 안았던 똑같은 장면에서 나왔던 음악을 더 격정적인 형태로 연주한다. 주디는 이제 스카티의 마음속에서 매들린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스카티의 현기증과 주디/매들린에 대한 스카티의 열정은 방과 두 사람이 빙글빙글 돌게 하는 세심하게 구상된 장면으로 시각적으로 하나가 된다.¹⁵⁾

길고 긴 포옹을 할 때 “Madeleine” 주제의 붓점 음표의 변형과 “Madeleine” 주제의 처음에 나오는 네 음짜리 음형이 연주하면서 가세를 한다. 네 음짜리 음형을 격렬한 왈츠 풍으로 변형시켜 음악의 시작은 점차적으로 두 연인 주변으로 귀착되는 마구간으로 장면이 전환된다. 한 덩어리가 된 현악기들이 ‘con forza’라고 표기된 부분을 갑작스럽게 위로 치솟는 듯이 연주하는 동안 플루트와 클라리넷이 선율을 연주한다(악보 19). 이 부분에서 현악기와 목관악기가 한 덩어리가 되어 높은 음으로 상행을 하는 등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들이 마지막 부분에 가세를 한다.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껴안을 때에 ‘러브 모티프’를 마지막으로 연주하고, 화면이 사라질 때에 현악기가 부드럽게 에코를 연주한다.

(악보 19) “Scene d'amour”의 클라이맥스

15) Graham Bruce, 위의 책, 165쪽.



14) “목걸이(The Necklace)”

스카티와 주디가 함께 저녁을 먹으러 외출하려고 할 때 주디가 스카티에게 목걸이를 걸어달라고 부탁을 한다. 주디가 목에 걸려고 고른 목걸이가 캐로타의 초상화에서 캐로타가 목에 걸었던 목걸이와 똑같은 것을 스카티가 깨달았을 때의 얼굴 표정을 잡기 위해 카메라가 스카티의 얼굴을 갑자기 잡는다. 그리고 그것이 캐로타의 초상화에서 캐로타가 목에 걸었던 목걸이와 똑같은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캐로타의 초상화 속의 목걸이와 그 초상화 앞에 앉아 있는 매들린의 뒷모습을 회상하는 장면을 집어넣는다. 이 장면은 호른이 하바네라 리듬을 크게 연주하고 클라리넷이 반음으로 하강하는 음형(D-D^b-C-B)을 연주한다. 이 장면이 스카티의 얼굴과 오버랩 되면서 이번에는 플루트가 하바네라 리듬을 연주하고 마찬가지로 클라리넷이 반음으로 하강하는 음형을 연주한다. 주디가 스카티에게 키스하는 장면에서 현악기가 ‘러브 모티프’를 연주하기 위하여 상행 음형을 연주한다. 그러나 현악기의 상행 음형은 스카티가 생각이 산만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한마디짜리 하바네라 리듬에 의하여 두 번 중단된다.¹⁶⁾

스카티는 주디에게 저녁 먹으러 가기 전에 드라이브를 하자고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차로 운전해서 가는 장면과 오버랩 되는데, 차로 운전해서 가는 동안 현악기 트레몰로 위에 호른과 플루트가 연주하는 부분이 플루트의 격렬한 하행 아르페지오 부분과 교대로 나오는 좀 기분 나쁜 음악이 나온다. 차가 수녀원에 도착하였을 때 낮게 구름 낀 하늘 밑에서

16) 위의 책, 170쪽.

수녀원을 길게 비추면서 오케스트라 전체가 음악을 연주한다. 주디가 스카티에게 자기를 왜 이곳으로 데리고 왔는지 불안해하면서 물을 때에 음악이 사라진다.

15) “회귀(The Return)”

스카티와 주디가 산 휴안 배티스타 수녀원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려 스카티가 주디에게 그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왈츠 풍의 음악이 나오는데 이것은 매들린에 가짜로 죽기 전에 스카티가 매들린을 쫓아 잔디밭을 가로질러 갈 때 나왔던 왈츠풍의 음악을 변형한 것이다. 이것은 “Madeleine” 선율에 나오는 첫 네 음짜리 음형으로 시작되어 변형된다. 앞에서 매들린이 잔디밭을 가로질러 갈 때 나왔던 쾌활한 음악은 단조의 기분 나쁜 음악으로 바뀐다. 이전에 나왔던 바이올린은 어두운 느낌의 비올라와 이 영화에서 죽음과 관계가 있을 때마다 나오는 클라리넷으로 바뀐다. 스카티가 주디를 억지로 끌고 잔디 광장을 가로질러 교회 안에 들어갔을 때 왈츠는 이전에 나왔던 것처럼 다시 장조가 되고, 트레몰로는 사라지고, 현악기의 높은 음역에서 상행을 한다.

스카티가 주디를 억지로 위층으로 올려 보내고 따라갈 때, 왈츠 풍의 음악이 더 활기차게 연주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스카티가 아래층을 내려다 볼 때에 생기는 고소공포증 발작이 D_{maj} 와 E^b_{min} 의 복조화음이 아니라 3박자 계열의 강한 비트로 나오는 큰 트릴로 나오는데, 이것은 스카티의 고소 공포증이 없어질 것이라는 암시이다.

스카티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반드시 계속 위로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하여 왈츠가 여러 가지로 힘들게 변형되어 느리게 다시 연주된다. 왈츠는 단조로 다시 돌아오고, 트릴은 이제 목관악기가 한꺼번에 계속 연주한다. 스카티가 계단을 수직으로 내려다보는 것을 반주하기 위해 현기증을 나타내는 복조 화음이 잠시 연주되지만, 스카티가 높은 곳을 쳐다보는 장면으로 되돌아 와서 다시 현악기 유니슨으로 느린 왈츠가 연주된다. 그러나 트릴이 사라지는데 이것은 현기증을 극복했을지도 모른

다는 힌트를 주는 것이다.¹⁷⁾ 스카티가 주디에게 “여기까지가 내가 올라 올 수 있었던 곳ियो, 기억하나요?”라고 소리칠 때 음악은 끝이 난다.

여기에서 음악이 나오지 않는 것은 화가 난 스카티가 자기의 감정을 말로 빠르게 표현하는 것을 관객이 확실하게 듣게 하기 위하여 음악을 중단한 것이다. 스카티가 자신이 고소공포증을 극복하였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을 때 그는 주디를 범죄의 현장인 종탑으로 데리고 가기로 결정한다. 여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장면도, 스카티의 현기증을 암시하는 복조 화음도 나오지 않는 것으로 현기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카티가 주디를 억지로 종탑으로 데리고 올라 갈 때 피날레 음악이 시작된다.

16) “피날레(Finale)”

스카티가 숨을 거칠게 헐떡이고 주디는 계단 위로 끌려 올라가는 것을 반항하면서 소리칠 때에 크게 연주하는 현악기의 트릴 다음에 클라리넷으로 빠른 아르페지오를 연주하는 거친 음악이 시작된다.

두 사람이 종탑으로 나가는 문을 통하여 종탑으로 나왔을 때 현악기의 큰 트릴 연주는 두 사람이 대화를 시작할 때 한층 부드럽게 연주한다. 스카티가 매들린에게 엘스터와의 관계에 대하여 사정없이 질문을 퍼부을 때 클라리넷이 부드럽고 낮은 음으로 음악을 이어받아 연주한다. 그리고 스카티가 매들린에게 엘스터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 묻고, 캐로타의 목걸이를 회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녀의 실수라고 말할 때 클라리넷이 “Madelaine” 선율의 첫 네 음짜리 음형을 변주하여 연주한다. 스카티가 울음을 터트릴 것 같은 표정으로 주디가 그렇게 감상적이 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할 때에 클라리넷의 어두운 음색은 사라지고 3박자 계열의 음악이 4박자 계열의 음악으로 바뀐다. 박자가 빨라지며, 약음기를 끈 현악기들이 ‘러브 모티프’를 부드럽게 연주한다. 스카티가 주디에게 그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는지 말할 때에 ‘러브 모티프’가 다시 연주되고,

17) 위의 책, 176쪽.

“Madeleine” 선율의 점음표 음형이 변형되어 나타난다.

음악이 갑자기 밝아짐으로 관객은 해피엔딩을 기대할 수도 있겠으나, 이전에 스카티와 매들린이 수녀원에 왔을 때 나온 익숙한 음악의 반복진행은 이번에도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오리라는 암시를 준다.¹⁸⁾ 주디가 스카티의 사랑을 다시 찾고 싶어 간절하게 이야기 할 때 “Madeleine”의 오프닝에서 나오는 상행하는 네 음짜리 음형 진행이 다시 나타난다. 앞에서 그러했듯이, 이 진행은 걱정적인 왈츠로 변하여 주디의 변명과, 마구간에서 매들린이 “너무 늦었어요”라고 대답한 것의 메아리처럼 “너무 늦었오”라고 말하는 스카티의 대답을 반주한다. 전체 오케스트라 연주가 다시 나올 때에 두 사람은 껴안고, 카메라는 두 사람에게 매우 가깝게 들이댄다. 주디가 스카티의 어깨 뒤를 쳐다 볼 때 하몬드 오르간이 화음을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의 크기로 연주한다. 그리고 관객에게는 까만 수녀복을 입은 사람이 어둠 속에서 보인다.

갑자기 음악이 멈추고 주디가 스카티를 껴안고 있었던 프레임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림으로써 주디가 땅에 떨어져 죽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주디가 땅에 떨어져 죽자마자 곧바로 금관악기의 크레센도가 반음계적으로 상행하며 울리는데, 이것은 영화의 앞부분에서 경찰관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울렸던 것과 똑같다. 스카티는 종탑의 밖으로 나가 아치 모양의 틈에서 손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밑을 내려다본다. 이 부분은 호른과 높은 음역의 현악기가 ‘러브 모티프’를 연주한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4음짜리 하강 음형은 약박으로 들어오는 목관악기와 트럼펫, 트럼본으로 인해 방해를 받고, 앞의 “Roof-top”에서 땅에 떨어진 경찰관을 보려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다음 장면에서 강한 크레센도가 나왔던 것처럼 땅에 떨어진 시체와 관계가 있는 크레센도가 울린다. 그리고 주디를 따라 아래로 뛰어내릴 것 같이 보이는 스카티가 사라지면서 전체 오케스트라가 C장조 화음을 크게 연주하면서 음악이 끝을 맺는다.

18) 위의 책, 177쪽.

3. <현기증>에 나타나는 라이트모티프의 전개

지금까지 <현기증>에 나오는 각 곡들을 분석하여 보았다. 각 곡들이 “Madeleine” 주제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라이트모티프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영화의 제목과 크레딧이 나오는 “프렐류드”에서 제시된 ‘복조화음(Vertigo 화음)’과 ‘러브 모티프’도 영화에서 스카티가 현기증을 느낄 때와 스카티와 매들린이 사랑을 느낄 때 연주되어 중요한 라이트모티프의 역할을 하므로, <표 1>에서 “프렐류드” 및 “Madeleine”에 나오는 모티프들이 그 이후의 각 곡들에서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표로 만들어 보았다. “Madeleine” 주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4부분으로 나뉘어 발전하므로 그 4부분에 따라 변주된 곡들을 밑에 적어 놓았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화 <현기증>에 나오는 모든 곡들은 “Madeleine” 주제와 “프렐류드”에 나왔던 모티프들의 변주이다.

<표 1>

라이트 모티프	“프렐류드”		“Madeleine”			
	Vertigo화음 (복조)	러브 모티프	네 음짜리 음형 네 개(1-4마디)	하강 음형 (5-6.5마디)	점음표 (9-10.5마디)	첼로 음형 (12-13마디)
라 이 트 모 티 프 의 전 개	지붕 위					매들린의 차
			꽃 가게			
				골목길		
			캐로타의 초상화			
			샌프란시스코만			
			외출			
					작별	
	탑					
		어떤 여자				
		사랑의 장면		사랑의 장면		
			목걸이			
	회귀				회귀	
		피날레			피날레	

III. 결론

이상에서 <현기증>의 영화음악을 라이트모티프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대부분의 영화 음악이 그러하듯이 <현기증>도 몇 개의 주제에 의하여 음악이 발전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Madeleine” 주제 선율이다. “Madeleine” 주제 선율은 주인공 매들린과, 매들린의 선조로 여겨지는 캐로타 및 동일인물 주디와 연관이 있고, 매들린이 화면에 나타날 때마다 “Madeleine” 주제의 단편들이 다시 나타나서 반복, 발전을 거듭한다. 매들린이 다른 사람(주디)이 되었을 때에도 음악적 구조는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Madeleine”

선율은 매들린이 죽는 장면까지 각 단편들로부터 나온 재료들이 음악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또 그 단편들은 다시 완전히 다른 음악으로 변형된다. 스카티가 주디를 만난 후 “Madeleine”에서 나왔던 단편들이 발전하여 다시 반복된다. 주디의 방에서 주디가 매들린으로 바뀌는 마지막 변형(머리에 핀을 꼽는 일)을 거치고 나서 스카티와 주디가 사랑하는 동안 “Madeleine” 선율은 “Farewell”에서 발전한 선율의 모양으로 다시 한 번 나온다.

스카티가 매들린을 차로 미행할 때, “Madeleine” 선율의 제6마디에 나오는 하강 음형에서 나온 단편들은 “The alleyway”의 재료가 되고, 또 “Madeleine” 선율의 마지막 두 마디의 첼로 선율은 “Madeleine’s Car”로 발전된다. 더 중요한 발전은 1~2마디의 첫 두 개의 4개짜리 음형이 변형되어 하바네라 리듬(e. xee)으로 반주되는 “Carlotta’s Portrait”의 첫 네 마디(A-G[#]-A-C-B-B^b-A)이다. 캐로타와 매들린을 연결하기 위하여 음악적으로 하바네라 춤곡 리듬 위에 “Madeleine” 선율을 연주한다. 하바네라 춤곡 리듬은 스페인 댄서인 캐로타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고, 악기는 하바네라 춤을 출 때 반주하는 기타와 가장 비슷한 음색의 하프로 반주하였다.

이 영화의 통일성은 이야기의 진행이 한 여자에 대한 한 남자의 강박관념에 의해 진행되는 것인데, 그 강박관념은 그의 고소공포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고소공포증은 “프렐류드”에 나온 D장조와 E^b단조의 복조의 ‘Vertigo 화음’으로 표현되어, 주인공 스카티가 고소공포증을 느낄 때마다 재연되는데, “지붕 위(Roof top)”, “창문(The Window)”, “탑(The Tower)”, “회귀(The Return)” 등에서 나온다. 그리고 스카티가 고소공포증을 극복한 장면에 가서는 복조의 ‘Vertigo 화음’이 사용되지 않고, 고소공포증에 의한 현기증을 의미할 때마다 카메라로 아래를 비추는 샷도 나오지 않는다.

또한 “프렐류드”에서 나왔던 ‘러브 모티프’는 스카티가 매들린에 대한 사랑을 느낄 때마다 반복된다. 스카티가 매들린이 죽은 후 매들린과 닮은

쥬디를 만나 그녀와 데이트를 하고, 그녀를 매들린과 똑같은 옷, 똑같은 머리 색깔, 똑같은 헤어스타일로 바꾸어 놓을 때에 ‘러브 모티프’는 계속 반복된다.

<현기증>은 영화사적으로 볼 때에 남자 주인공의 심리, 즉 고소공포증에 의한 현기증, 매들린의 죽음에 대한 강박관념, 죽은 매들린에 대한 스카티의 집착 등을 매우 잘 묘사하고 있으며, 그러한 주인공의 심리를 버나드 허먼은 음악적으로 매우 잘 묘사하였다. <현기증>은 구조적으로 매우 탄탄한 스토리의 전개에 매우 적절하게 주제와 주인공의 심리 묘사(복조 화음과 러브 모티프)를 조화시키고 있으며, 그러한 스토리 전개와 심리 묘사를 음악적으로 잘 표현하여,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사이코> 등 이 후의 허먼 자신의 영화음악은 물론 다른 영화음악 작곡가들의 영화 음악에도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참고문헌

1. 비도서 자료

- Vertigo Original Motion Picture Soundtrack, Music Composed by Bernard Herrmann, Conducted by Muir Mathieson, Restoration CD Produced by Robert Townson,, Mastered by Joe Gastwirt and Ramon Breton, Manufactured by Varese Sarabande Records. Inc., 1996.
- The Alfred Hitchcock Collection <Vertigo>, 1958 Alfred Hitchcock Productions. Inc & Paramount Pictures Corporation., Renewed 1986 by Universal City Studios, Inc., Restored Version 1996.

2. 도서 자료

- 유재형 편저, 『영화영상기술용어집』, 서울: 집문당, 1999.
- 이경기, 『영화영상용어사전』, 서울: 다인미디어, 2001.
- Willi Apel, Harvard Dictionary,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1973.
- Graham Bruce, Bernard Herrmann: Film Music and Narrative, Michigan: UMI Research Press, 1985.
- George Burt, The Art of Film Music: special emphasis on Hugo Friedhofer, Alex North, David Raksin, Leonard Rosenman,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1994.
- David Cooper, Bernard Herrmann's Vertigo: A Film Score Handbook, London: Greenwood Press, 2001.
- Edited by Didier C. Deutsch, The Essential Album Guide to Television and Stage Music, Detroit :Visible Inc Press, 2000.
- Donald J. Grout A History of Western Music, New York: W.W.Norton & Company., Inc., 1980.
- Steve Harris, Film and Television Composers: An International Disco- graphy, 1920-1989, Jefferson: McFarland & Company, Inc., Publishers, 1992.
- Randall D. Larson, Musique Fantastique: A survey of Film Music in the Fantastic Cinema, London: The Scarecrow Press, Inc., 1985.

- Roger Manvell, The technique of film music, London, NewYork: Focal Press, 1957.
- Donald Spoto, The Art of Alfredo Hitchcock: Fifty Years of His Motion Pictures. Garden City, N.Y.: Doubleday, 1979.
- Tony Thomas, Music for the Movies, New Jersey: A. S. Barnes and Co., Inc., 1973.
- Edited by Tony Thomas, Film Score: The View from the Podium, New Jersey: A.S. Barnes and Co., Inc., 1979.
- François Truffault, Hitchcock. London: Panther, 1969.
- Steven D. Wescott, A comprehensive bibliography of music for film and television, Detroit: Information Coordinators, 1985.

검색어: 히치콕, 현기증, 버나드 허만, 영화음악, 라이트모티프

Abstract

The Study on the Analysis of Film Score viewed at the Leitmotif

Park, Eunkyung

Like most of film scores, the music of *Vertigo* is developed by a theme "Madeleine". The "Madeleine" theme is shown in the great parts of cues. The "Madeleine" theme is related to a heroine Madeleine, the Madeleine's long-dead ancestor Carlotta, and the same person Judy. Whenever Madeleine appears in the scene, the fragments of "Madeleine" cue are repeated and developed. Even when Madeleine becomes the other person Judy, the structure of music is not changed and remains as it is. The segments of "Madeleine" cue keep the great part of film scoring of *Vertigo* until Madeleine dies, and the segments are changed to different music. After Scottie meets Judy, the segments from "Madeleine" are developed and repeated. During of the love scene after Judy's transformation into Madeleine in the Judy's hotel room, the "Madeleine" cue is repeated once again in the form of developments of "Farewell" cue.

In the viewpoint of leitmotif, the segments of "Madeleine" cue are changed and developed differently. the segments from "Madeleine" become the source of other cues. The more important development is the first two four-note figures of the first and the second bars of "Madeleine" cue transformed into the first four bars of "Carlotta's Portrait" which is accompanied by the habanera rhythm. Madeleine is related with her alleged ancestor Carlotta musically here.

The unity of *Vertigo* is progressed by Scottie's clinging to Madeleine, the

clinging is related to Scottie's acrophobia closely. This acrophobia is expressed as a bitonal chord—vertigo chord of D major and Eb minor and that chord is played whenever Scottie feels acrophobia. And Love motif of "Prelude" is repeated whenever Scottie feels love of Madeleine.

Vertigo describes psychology of a hero — vertigo of acrophobia, an obsession of the death of Madeleine, and Scottie's clinging to dead Madeleine —, and Bernard Herrmann represents the mental state of the hero musically very well. Vertigo has a structurally soundly based story development and harmonizes the theme with psychological depiction of heroine(bitonality, Love motif), and express story development and psychological depiction musically very well. Vertigo influenced the film scores of other composers as well as the film scores of Herrmann himself.

Keywords: Alfredo Hitchcock, Vertigo, Bernard Herrman, Film music, Leitmotif

